

2 WEF, 유럽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행 방안 제시

➔ 세계경제포럼(WEF) 유럽의 성장 및 경쟁력 리더(LGC*) 플랫폼은 EU의 경쟁력 현황을 4대 주요 영역에 걸쳐 진단하고 실행과제를 제시하는 보고서**를 발표('26.9)

* Leaders for European Growth and Competitiveness: 유럽의 성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자 WEF가 '25년 7월 출범시킨 다자간 이해관계자 플랫폼

** Leaders for European Growth and Competitiveness First Edition

● (개요) EU의 경쟁력을 4대 주요 영역*으로 구분해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제시하는 연례보고서

* ▲청정하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및 산업 ▲지능의 시대 형성(기술·혁신) ▲금융시장 활용 ▲전략적 제휴

- LGC 출범 첫해에 진행한 정부, 기업, 금융, 학계 지도자들과의 협의 및 관련 사례 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의 경쟁력 의제와 관련된 4개 영역을 검토
- 그 결과 유럽은 산업 현장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역량, 4억 5,000만 명 규모 소비자 시장, 풍부한 가계 저축, STEM 인재, 안정적 제도 등 다양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
- 즉, 유럽의 문제는 성장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자본이나 기술, 외교·경제안보 수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를 경쟁국 수준의 속도와 규모로 배치·확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론
- 따라서 유럽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신속하고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
- 다만 공공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, 정부, 기업, 투자자, 시민사회, 기타 기관들이 각자 맡은 역할과 해결책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설명

● (주요 내용) 4개 영역에서 유럽의 경쟁력 현황을 진단하고, 공공·민간 부문을 위한 실행과제를 제언

- (에너지·산업) 유럽의 청정에너지 및 산업 혁신에는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와 공급처 다변화가 필요
- (기술·혁신) 초기 단계 기업(초기 스타트업)과 기술 기반을 확장하려면 27개 회원국 간 분절성을 해소하고, 공동 조달과 같은 공동의 수단을 활용해 개별 회원국 단독으로는 조성할 수 없는 유럽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

- (금융시장) 유럽 내 막대한 저축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려면 증권화*, 개인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, 연금제도 강화 등을 통해 기업 성장에 맞춰 여러 자금 조달 수단이 꾸준히 제공되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
- * securitization: 현금화가 어렵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(대출채권, 부동산, 매출채권 등)을 모아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쉬운 유가증권으로 만들어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하는 방식
- (전략적 제휴) 개방형 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특정 공급자·시장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역 협정, 대외투자, 경제 안보 수단을 결합한 보다 통합된 대외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

〈 진단 및 실행과제 〉

구분		주요 내용
에너지·산업	현황 및 진단	• 유럽 청정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은 더 이상 기술 부재가 아니라 배치와 실행 속도의 문제 - 그 증거로 구매자 연합(Buyers' Coalition)*은 불확실했던 청정 기술 시장을 자금 조달이 가능한(bankable) 시장으로 전환하고 청정 기술의 상업적 보급을 지지 * 특정 기술·제품의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수의 기업이 모여 미래의 대규모 구매를 사전에 약속하는 연합체 • 유럽은 이미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 보급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, 변화를 가로막는 기존 체제의 경직성이 문제 • 유럽이 자체 청정에너지를 활용해 산업, 건물, 운송 부문의 최종 에너지 수요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23%에서 '40년까지 46%로 확대한다면(전기화), 연간 최대 2,600억 유로에 달하는 화석연료 수입 비용 절감이 가능
	실행과제	• 정권에 관계없이 관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조정, 명확한 장기 비전이 필수 • 신속한 인허가 절차, 전력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, 신뢰할 수 있는 장기 투자 신호를 통해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한 청정에너지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고 최종 소비 부문의 전기화(electrification)를 가속화 • 청정 연료는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
기술·혁신	현황 및 진단	• 유럽의 생산비용이 중국과 같은 주요 경제국보다 통상 40% 이상 높은 만큼 유럽은 비용 우위보다는 혁신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• 유럽은 연간 1조 4,000억 유로의 신규 가계 저축, 미국보다 높은 STEM 인재 비중, 미국 기술 인력의 유럽 순유입 등과 같은 강점을 보유 • 그러나 유럽의 강점을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본구조, 법·규제 체계, 공공·민간 파트너십, 기술 도입 유인 등에 대한 정비 필요
	실행과제	• 자본 접근성 개선, 시장 파편화 해소, 기술 도입 가속화를 통해 유럽 내 약 4만 개의 초기 단계 기업이 성장(스케일업)할 수 있도록 지원 - 구체적으로 ▲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 ▲유럽 전역에서 범EU형 기업(EU Inc.) 설립을 통일된 규칙으로 뒷받침하는 '제28체제(28th Regime)' 도입·확대 ▲기업 인수합병·협력 규제 개선 ▲규제 간소화 ▲AI 데이터·인프라·인재·조달 강화를 추진 - 특히, 공동 공공 조달은 양자컴퓨터와 같은 전략 기술의 초기 수요를 창출해 개별 회원국만으로는 형성하기 어려운 유럽 시장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

구분		주요 내용
금융시장	현황 및 진단	• 유럽에는 자본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계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 • 따라서 유럽의 풍부한 가계 저축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해 성장과 혁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
	실행과제	• 증권화, 연금제도 강화, 개인·가계의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저축을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 - 저축투자연합(Savings and Investments Union)*을 통해 예금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 * 가계 저축을 장기·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고,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와 EU 자본시장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EU가 '25년 3월 제시한 금융 전략 - 영국의 연금제도 개혁 사례*는 다른 국가들에도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 * 영국은 '12년에 직장 연금을 '신청' 방식에서 '자동 가입 후 탈퇴 선택'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약 90%의 근로자가 가입을 유지해 연간 납입액이 1,500억 파운드에 육박
전략적 제휴	현황 및 진단	• 개방형 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공급자·시장 등에 대한 과도한 전략적 의존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
	실행과제	• 무역 협정, 글로벌 게이트웨이(Global Gateway)*, 경제 안보 수단 등을 보다 유기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투자를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대외 의존도를 축소 * EU가 저개발국·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인프라·연결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외 투자·협력 프로그램 • 대외투자·개발 협력 전략 등을 통해 유럽 기업의 시장 접근성과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 • 핵심 원자재 부문에서는 채굴·정제·재활용 역량과 공급 다변화를 병행

출처 : 세계경제포럼(WEF) (2026.9.9.)

https://reports.weforum.org/docs/WEF_Leaders_for_European_Growth_and_Competitiveness_First_Edition_2026.pdf